



[산업]  
LG디스플레이  
中 광저우공장 5兆 투자  
OLED 사업 본격화  
05

[유통]  
신세계百  
직장인 위한  
문화·운동 강좌 신설  
L1



## 공시족 양산 공무원 열풍이 낳은 씁쓸한 풍속도 중년에 신입공무원... 사사건건 갈등 빚는 동기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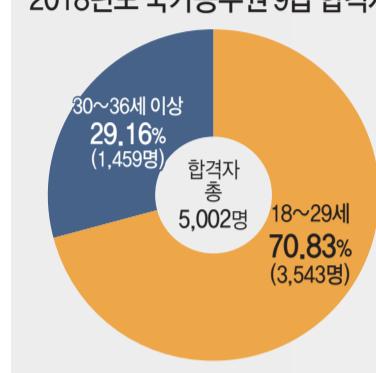
회사원이었던 신입 공무원 전 직장 회식문화 강요해 세대 뒤섞이며 괴리감 커져

직장을 그만 둔 공시족(공무원 준비생)이 늘어나면서 전 직장의 회식문화를 강요하는 '동기 꾼대'가 생겨나고 있다. 공시족은 40대 이후의 삶이 불안해 직장을 나오고, 합격자 사이에선 나이 많은 동기가 모임을 강요하는 등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설명이다.

유모(30) 씨는 지난 2015년 8월 대기업에 입사했다가 지난해 7월 퇴사 후 9급 검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유씨는 "100세 시대에 맞춰서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원했다"며 "한 번 뿐인 인생인데, 일반 기업에서 일하기보다는 공무원이 더 뜻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입사 후 10년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불안감은 뜨거운 공무원 시험 열기로 이어

2018년도 국가공무원 9급 합격자 연령



진다. 실제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 5월 청년층(15~29세) 4892명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은 256명, 교원임용은 43명, 고시와 전문직은 58명이 준비했다. 취업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4191명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업을 준비하는 셈이다.

공무원 시험 합격자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인사혁신처가 낸

'2018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최종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합격자 5002명 가운데 18세~29세 합격자는 3543명(70.83%)이었다. 30세~36세 이상은 1459명(29.16%)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합격자 4994명 가운데 17세~29세가 3592명(71.92%), 30세~36세 이상이 1402명(28.07%)이었다.

직장에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하는 비율도 적지 않다. 잡코리아가 지난 3일~8일 20대~30대 취업 준비생과 직장인 2858명을 설문한 결과,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12.6%였다.

회사원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전 직장에서 체득한 문화를 동료들에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괴롭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이 된 A씨는 "대기업에 다녔고 초등학생 자녀도 있는 중년 동기가 가끔씩 금요일 퇴근 때만 되면 단톡방에서 동기들에게 '번개(갑작스런 식사 약속)' 하자고 재촉한다"며 "다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데,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다 보니 잘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단체 대화방이 조용하면 일부 인원을 지목해 '너희는 괜찮지 않느냐'는 식으로 부담을 주기도 한다"며 "꼰대들의 직장 문화를 어린 동기들에게 강요하려

드는 모습에 다들 그를 피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타인과 '좋음'을 나누며 외로움을 줄이려는 노력이, 세대가 뒤섞이는 신입 공무원 사회에서 종돌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미래가 불안해 공무원이 된 청년층 종래에서 과거 직장 문화에 젖은 이들과 워라밸을 지향하는 층 사이에 괴리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김연희 국민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재 추세로 볼 때, 같은 집단 내 다른 세대가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은 데 따른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중년이 되어 공무원이 된 경우, 과거 기업에서 대물림한 '좋음'이 현재 젊은이들의 좋음과 어떻게 다른지, 워라밸은 무엇인지 공감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 세대를 넘어 원활한 소통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범준 기자 joker@metroseoul.co.kr

## 서울시, KT그룹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 '집수리 건축학교' 설립해 주민 참여 지역재생 지원

서울시는 KT 그룹과 함께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규모 산업 재생이 아닌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민간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연내 '집수리 건축학교'를 설립,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실내 인테리어와 목공기술 실

습, 경영·마케팅 기법 등이다.

시는 '집수리 건축학교'를 졸업한 주민들이 전문기술을 토대로 직접 집수리를 주도하고, 더 나아가 '지역재생회사(CRC,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와 KT 그룹은 난곡·난향동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으로 공동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지는 ▲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목2동 ▲수유1동 ▲창3동 ▲불광2동 ▲천연중현동 ▲난곡·난향동(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총 11개다.

김종익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서울시 주거지 재생사업 최초로 민간기업과 공동 추진되는 만큼 체계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앞으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 확대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중소기업·스타트업 中진출 도와드려요"

### 서울시, 중국투자협력주간 개최 참여기업 20곳 모집해 진출 지원

서울시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시는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행사인 '중국투자협력주간'에 참여할 기업 20곳을 선발한다.

시는 오는 11월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제3회 중국투자협력주간'을 개최한다며, 참여기업 20곳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국투자협력주간'은 양 도시 및 기업 간 교류를 통해 서울과 베이징 양 도시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베이징 자매도시 결연' 25주년으로 베이징시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경색국면에 있던 한·중 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 기업 및 지방 정부 간의 활발한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해왔다. 2016년 자자체 최초로 개최한 1회 행사는 56명의 중국 투자자를 서울로 초청, 총 5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성과를 거둔바 있다. 2017년에는 투자자 초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과 선전 현지에서 3박4일 간 진행했으며, 기업 간 투자협력 MOU를 9건 체결했다.

시는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중국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국 투자자의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참가기업을 선별하는 등 투자자 매칭 성사를 최대한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국 투자협력주간'도 서울의 유망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중국 현지로 투자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지 엑셀러레이터 등 스타트업 보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진출 기회도 모색한다.

시는 오는 8월 1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행사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기업 중 최종 선발된 20개 기업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투자유치' 기회가 주어진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현지 행사 참여 이전부터 기업소개서, IR 제안서 등 자료작성 지원을 비롯, 투자유치 기본·컨설팅·멘토링·투자연계까지 이르는 사전 전문컨설팅과 함께, 베이징에서 1:1 투자상담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

### 22년 된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위해 10월 말까지 폐쇄... 다른역 이용해야

오는 18일부터 10월 말까지 서울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2호선과 4호선으로 환승할 수 없게 된다.

서울교통공사는 22년 된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를 위해 7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5호선 환승통로를 완전히 폐쇄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사가 시작되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호선에서 2·4호선으로 환승하는 승객은 인접 역으로 우회 환승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재보다 약 6~13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승객은 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을지로4가역에서 환승하면 된다.

4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는 승객은 4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에서 2호선으로 갈아탄 후 을지로4가역이나 왕십리역 등에서 5호선을 이용하면 된다. 또는 4호선 동대문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해 종로3가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면 된다.

출구로 나와 지상에서 환승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지하 환승 통로를 통해

환승할 때보다 약 12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비상 게이트를 통해 6번 출구로 나온 후 5번 출구로 다시 들어가 2호선이나 4호선 비상 게이트를 이용해 승차하면 된다. 역방향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비상 게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선·후불교통카드로 하차 태그를 한 뒤 30분 이내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의 다른 호선 게이트에 승차 태그를 하면 특례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호선 에스컬레이터 장애 건수는 월평균 4.97건으로 다른 에스컬레이터 장애 건수(0.9건)보다 5배 이상 많다.

교통공사는 부분 폐쇄도 고려했으나 혼잡도 증가로 인한 승객 안전 문제가 지적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환승 통로가 폐쇄돼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공사 기간이 줄어 빠른 시간 내에 사고 없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11일 오전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의 22년 된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5호선 환승 통로를 폐쇄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손진영 기자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호선 환승통로 폐쇄

22년 된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위해 10월 말까지 폐쇄... 다른역 이용해야

오는 18일부터 10월 말까지 서울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2호선과 4호선으로 환승할 수 없게 된다.

서울교통공사는 22년 된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를 위해 7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5호선 환승통로를 완전히 폐쇄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사가 시작되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호선에서 2·4호선으로 환승하는 승객은 인접 역으로 우회 환승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재보다 약 6~13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승객은 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을지로4가역에서 환승하면 된다.

4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는 승객은 4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에서 2호선으로 갈아탄 후 을지로4가역이나 왕십리역 등에서 5호선을 이용하면 된다. 또는 4호선 동대문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해 종로3가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면 된다.

출구로 나와 지상에서 환승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지하 환승 통로를 통해

도 있다. 이 경우 지하 환승 통로를 통해